



셋노란 물결 '념실념실' 지난 2일 학생들이 개나리꽃이 활짝 핀 중앙도서관 계단을 걷고 있다.

김명지 기자

## 총학 일간지 천안함 광고...보수성·배후 논란

총학 “자체 모금으로 게재...사회참여 의식 높이려는 의도”

이공일이 총학생회(회장 정준호)가 천안함 사건 2주기를 맞아 지방신문에 낸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4·11 총선을 앞둔 보수진영에서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단독으로 일간지에 이같은 광고를 게재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기

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총학생회는 A일보와 B일보에 천안함 사건 2주기를 맞아 46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광고를 5단통 크기로 하단에 게재했다. 광고에서 총학생회는 천안함 사건

에 대해 ‘북한이 저지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음에도’ 등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 기구로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김관대씨는 “총학생회가 보수우익단체가 낼 법한 광고를 냈다”며 “과연 학생들의 민의를 반영한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윤용택(철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총학생회는 정치적 중립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렇듯 한쪽으로만 치우친 발언을 한 데에 적잖은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학생들을 대표하는 중앙자치기구로서 학생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해군의 요청으로 이같은 광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상대학의 한 학생은 “그간 정치적으로 침묵해 오던 총학생회의 이번 입장 표명

을 보며 뒤에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광고 게재를 했다는 입장이다.

정재우 부총학생회장은 “천안함 2주기 광고를 낸 것은 학생들이 사회현안이나 국가 안보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비록 여론이 나뉘더라도 총학생회의 입장을 솔직하게 표명해 학생들이 천안함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선정돼

연간 20~40억씩 5년 동안 지원 혜택

제주대가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LINC) 대상자로 선정돼 연간 최고 40억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1개 대학 중 제주대는 ‘현장밀착형 사업’ 부문

에 선정됐다.

현장밀착형 사업 추진대학에는 연간 20~40억 원이 배정된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2년 후 단계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평가한다.

LINC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

으로 지역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산업과 접목되는 취업, 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제주대 LINC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경제권 선도전략 산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기업과의 협력강화

와 기업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 지원한다. 제주대에서는 경상대학, 공과대학 등 6개 단과대학 35개 학과(부)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남호 산학협력단장은 “산업체와 대학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체제개편과 교육프로그램에 일대 혁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 변호사 시험 합격률 거점국립대 1위

93.8%로 전국 8위...특강·모의고사 등 만반의 준비로 큰 성취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창균, 이하 법전원)이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률 전국 8위, 국립거점대학 1위를 기록했다.

법전원은 32명이 응시, 30명이 합격해 93.8%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거점국립대 법전원에서는 제주대가 1위를 차지했으며, 전남대(90.6%), 부산대(89.6%), 강원대(87.1%), 충남대(82.2%), 경북대(79.2%), 전북대(78.1%), 충북대(76.8%) 순이었다.

높은 합격률을 달성한 원동력으로 는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을 대비해 학교측

의 적극적 지원이 주효했다. 이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 교육여건 등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유명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여러 차례 실시하기도 했고, 시험을 대비해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치러 학생들이 스스로 실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특강비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높게 달성할 수 있었

다. 김창균 법전원장은 “법전원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해 장학금 제도, 기숙사 제공 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높은 합격률을 매년 달성해 전국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 2008년 전도민적 성원에 힘입어 정원 40명의 법전원 유치를 이끌어 냈다. 당시 로스쿨 졸업 1차년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률 90% 이상 달성, 5년 이내 전국상위 10위 이내 로스쿨 도약을 목표로 했었다.

김동현 기자

## 총장직선제 폐지 확정

평의회 학칙 개정... 교과부와 MOU 체결

제주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 사항이 포함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29일 교과부와 체결했다. 또 이날 평의회에서는 ‘총장 후보직선 추천제’에 관한 학칙이 원안 통과됐다.

이날 평의회에서는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를 표명하며 기존 교수회 임원 모두가 사퇴하는 파행이 일기도 했다. 양길현 교수회장이 지난달 26일 비상총회에서 사퇴한데 이어 평의회 의장직 대행을 맡고 있는 송성희 전 부회장도 같은 이유로 29일 사퇴했다. 결국 평의회는 현승환 교수가 의장직을 대행해 평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체결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은 허향진 총장이 서울 중앙정부청사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1일 열린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서 교직원 68.7%가 찬성함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 내용은 △ 새로운 총장 선정방식 도입 △ 강의평가 및 교원 업적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이날 오후 제주대 본관 회의실에

서 열린 평의회는 4차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직선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학칙안은 표결에 부쳐져 표결참여 인원 28명 중 16명(57%)이 찬성했다.

총장 임용 후보 선출 규정을 담은 제8조 2항에 ‘총장 후보자는 직선제를 개선해 총장임용 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 선정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바뀐 제도는 2013년 하반기 예정된 차기 9대 총장 선출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평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해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관련 학칙’을 개정하면 5점, 교과부와 업무협약만이라도 체결하면 4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며 “4점의 가산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평의회 이전에 잡힌 협약 일정을 불가피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장애인 창업지원

11일까지 수강생 모집

제주대 창업지원단(단장 조경호)이 오는 11일까지 ‘장애인 원스탑 창업지원사업’ 기초교육 수강생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원스탑 창업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 장애경제인이며 인원은 20명 내외다.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무료로 진행된다. 내용은 △ 창업의 이해, 마인드, 역량개발 △ 기업가 정신의 이해 및 특성 △ 창업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 장애인 창업 아이템 선정 △ 창업절차 실무 등이다.

접수는 장애인 창업지원시스템(start.debc.or.kr)을 통해 받는다. 문의는 제주대 창업지원단(010-6691-6491)。

### 사령

박종건(국어국문학과 4)

고용희(사회학과 4)

4월 1일자로 특별기자로 임명함

제주대신문

특성화사업단 현장 - 김굴수출연구사업단 ▶ 4면 4.11 총선거 특집 - 정당에게 듣는다 ▶ 6면 4.3 특집 4.3의 역사가 몸에 새겨진 사람들 ▶ 8면

꿈을 키운 60년,  
빛이 되어 세제로

60th ANNIVERSARY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행사일시\_ 2012년 5월 (개교기념 행사와 함께 실시)

행사내용\_ 기념패 및 기념품 전달, 추억의 길 걷기, 만찬 및 공연 등

신청자격\_ 제주대학교를 졸업한 3대 동문 가족(외조부·모, 재학생 포함)

신청기간\_ 2012년 2월 22일(수) ~ 4월 30일(월)

제출서류\_ 신청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신청방법\_ 제주대학교 홍보·출판센터 방문 접수(FAX 및 우편 접수 가능)

\*자세한 사항은 전화 : Tel 064. 754. 2046 Fax 064. 702. 0549

제주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동문들에게 애교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제주대 3대 동문 가족’ 을 찾습니다.  
동문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대 동문 가족은?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졸업생 → 아버지 → 조부모 및 외조부모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졸업생 → 어머니 → 조부모 및 외조부모

## 사설

### 법학전문대학원의 ‘좋은 출발’을 축하하며

마음줄이며 기다렸던 제1회 변호사시험의 결과가 나왔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32명이 응시하여 30명이 합격하였다. 합격률 93.8%.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8위, 지방법점국립대에서 1위라는 성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은 응시자(1451명) 대비 합격률이 87%이고,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72%이다.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렸고’, 함께 축하할 경사임에 틀림없다. 제주대 법전원 제1기 학생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이를 위해 수고한 제주대 법전원 교수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 제1회 변호사시험의 좋은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 나은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이는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이다. 매년 입학생이 2000명이 들어오고, 그 중 1500명 정도가 합격하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은 5년까지 응시 기회가 부여된다. 매년 500명씩 응시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평균 합격률을 계산해 보면, 제1회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75%이지만, 제2회 변호사시험은 60%, 제3회는 50%로 떨어지고, 제4회는 43%, 제5회는 합격률이 37.5%가 된다.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계속 37.5% 합격률이 유지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변호사시험을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 제1회(2006년) 변호사시험(신사법시험) 합격률이 48.3%이었고, 제2회(2007년)는 40.2%, 제3회(2008년)는 33%, 제4회(2009년)는 27.6%, 제5회(2010년)는 25.4%, 제6회(2011년) 합격률은 2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대 법전원의 성패는 제1회 변호사시험의 성공에 있지 않고,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주는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제주대 법전원이 얻은 좋은 성과는 ‘아주 훌륭한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매사가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법이고, 시작이 안 좋으면 끝도 안 좋은 법이기 때문이다. 제주대 법전원이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바라기는 ‘제주대 법전원’의 프레임이 구상함에 있어 적어도 10년 뒤를 내다보는 프레임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길 바란다. 계획이 현실에서 힘을 가지려면 선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의 힘을 모아 ‘명문 제주대 로스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제1회 변호사 시험은 보여주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의 좋은 성과를 토대로 단단하게 기초공사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대학 홍보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총장선출방식 변경에 따른 갈등으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최근 우리대학교에 큰 경사가 생겼다. 로스쿨 첫 변호사 시험에 93.8%가 합격함으로써 국립거점대학 중 1위,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 8위를 기록한 것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갖가지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켜준 아주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개교 60년 동안 숏한 경사가 있어왔지만 이번 로스쿨의 성과야말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경사에 대학본부의 홍보는 의아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언론에 보도된 첫날인 3월 26일에는 ‘천안함 용사 2주기’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정문에 걸렸다(로스쿨 합격 관련 홍보 현수막은 나중에야 걸렸다). 과연 그게 로스쿨의 경사를 넘을 정도의 중대 사안이었는가?

대학본부에서는 이런 경사를 두고 언론에 광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어느 온라인신문의 우리대학교 광고에도 ‘정부 4년제 첫 평가/제주대, 정부 인증 획득’이라는 내용만 개교 60주년 캐치프레이즈와 더불어 나오고 있을 따름이다. 과연 일반 독자들이 ‘정부 인증 획득’이 무슨 의미인지 알거나 할까? 그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국립거점대학 1위’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8위’가 훨씬 더 분명하게 각인되지 않았는가? 대학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홍보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대학홍보의 절호의 기회를 왜 마냥 흘려보내고 있는지 이

해할 수 없다.

도내 언론들의 반응 또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냉담했다. 종이신문의 경우 첫 보도는 3월 26일에 나왔다. A신문, B신문, C신문은 모두 10~18행 분량의 1단 기사로 아주 초라하게 보도했다. 기사 제목도 「제주대 로스쿨/변호사 30명 배출」, 「로스쿨 첫 변호사시험/제주대 응시 94% 합격」,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변호사시험 30명 ‘합격’」으로 지극히 단순하게 처리했다. D신문은 3단 기사로 크게 보도했지만, 아주 부정적인 기사였다.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 합격했는데…/제주대 32명 중 30명 통과…3명만 취업해 구직난 심각」이라는 제목만 보더라도 기사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후에 나온 기사에서는 국립거점대학 1위나 전국 8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작은 기사로 초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대학교의 홍보 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좋은 자랑거리를 두고도 광고 한번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부정적·소극적 보도, 나아가 악의적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현실은 가히 위기 상황이라고 할 만하다. 차체에 대학본부에서는 홍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격적 홍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절호의 대학 이미지 제고 기회를 어쩔쩔 놓쳐버리는 기막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교수회 임원진 총사퇴… 교수회장 보궐선거 23일

비상총회서 대책위 구성

임후보 등록 9·10일 양일간 일부선 “교수회 대응 늦어”

제주대 교수회(회장 양길현 윤리교육과 교수) 임원 전체가 총장직선제 폐지 투표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남은 교수회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동식 물리교육전공 교수)를 구성하고, 오는 23일 교수회장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제5대 교수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일정 및 등록절차에 대한 공고를 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임후보자 등록은 오는 9·10일 이틀간 교수회 사무실로 하면 된다.

이에 앞서 양길현 전 교수회장은 지난달 26일 교수회관에서 열린 비상총회에서 “교수회가 대학의 자존과

자율성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교수는 지난 21일 열린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에서 관련개입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학본부와 일부 학장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연락해 무리하게 투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4일간 진행된 교과부 장관 불신임 투표에서 교수 561명이 참가(투표율 53.1%)한 가운데 83.8%가 이주호 장관을 불신임하기로 결의했다. 양길현 교수는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회 전체 임원이 사퇴함에 따라 교수회 보궐선거 전까지 교수회 업무를 대체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강동식 교수는 “보궐선거가 이뤄지



지난 26일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수회 비상총회가 열린 가운데 교수회 전 임원이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기 전까지 교수회 임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맡고 선거를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한 일부 교수들로부터 교수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비상총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대학본부가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치는 등의 활동을 보이는 동안 교수회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교수사회는 물론 대학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교수회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기자

### SNS 선거운동 허용…학생자치기구 예산안 가결

27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서 정기 대의원총회 열려



지난달 27일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회 구성원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2012학년도 상반기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족수 216명 중 185명이 참여해 85.65%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12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 현황 △학생회칙 및 선거감사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 △2012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업체 선정 과정 보고 △2012학년도 상반기(가)예산 사유서 △2012학년도 상반기 예산 결과보고 △2012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총운영위원회 결과보고에는 총학생회가 학생행사 보조경비 분배내역, 공약이행 사항을 보고했다. 더불어 장애인 인권 대책위원회와 ‘이공일이’ 총학생회 등의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중앙자치기구, 각 단과대학별 예산안은 모두 가결됐다. 중앙자치기구는 총 1441만2330원, 각 단과대학 및 야간강좌부에 총 1761만5070원이 모두 예산으로 승인됐다.

학생회칙 및 선거·감사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학년대표 내용이 수정됐

다.

학년대표는 각 과 집행부 소속이 아닌 각 과의 운영위원과 단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각 과 학년내의 필요사항을 총괄업무하게 된다. 또 선거법 중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부분을 신설해 SNS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고쳤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내용도 추가해 선거일이 아닌 선거운동기간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회비는 지난달 20일 기준 3558만6000원이 납부됐다. 1학기 등록자 9731명 중 5931명이 납부해 60.5%의 납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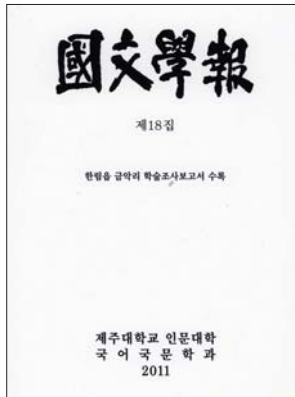
한편 졸업앨범 제작 업체는 ‘롯데스카이힐 포토샵’만 입찰 등록을 했다. 심사위원 13명 중 1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업체가 선정됐다.

김진영(경영학과 4) 총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학과 대표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며 “다음 학기에 열릴 정기총회에서는 더 많은 학과대표를 참여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국문학보』 18집 간행

학술조사보고서 등 수록



국어국문학과는 지난해 12월 학과지 『국문학보』 제18집을 간행했다.

이 책은 2011년도 6월에 한림읍 금악리에서 실시한 학술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비롯해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집필한 작품과 논문들로 구성돼 있다.

『국문학보』는 지난 1956년 창간한 학과지로, 주로 격년으로 간행하는 가운데 수년 동안 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가 2010년부터 연간지로 전환했다. 이같이 매년 학과지를 만들어 발행하는 학과는 제주대에서 국어국문학과가 유일하다.

김소영 기자

## 제32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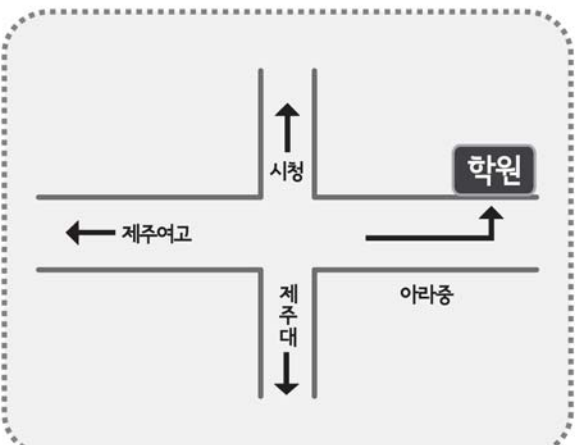
5. 발표 : 제주대신문 872호(2012년 7월 4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상금 -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학 바뀐 반값 수강료 시스템으로 모시겠습니다.

4월 30일 개강!!!

### 제2차 외국어특별강좌

★개설강좌와 혜택이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 강좌기간 : 2012. 4. 30(월) ~ 2012. 6. 8(금) (6주)  
\* 일부강좌 : 2012. 4. 23(월) ~ 2012. 6. 1(금) (6주)

☞ 접수기간 : 2012. 4. 16(월) ~ 4. 26(목) 오후 5시  
\* 4. 23(월)에 시작하는 강좌는 4. 20(금)까지

☞ 개설강좌

- 원어민영어회화, Writing, Grammar, TOEIC,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30여개 강좌

☞ 인터뷰기간(원어민 회화 강좌) : 접수기간 오후 2시~3시

☞ 수강신청방법

-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http://fli.jejunu.ac.kr>) → 수강신청

☞ 수강자 혜택

- 출석률 100% : 문화상품권 증정
- 출석률 90% 이상 : 해외문화체험 신청 자격(학부계학생)
- 출석률 80% 이상 : 다음 차수 등록 시 10%씩 누적 할인  
⇒ 1차부터 연속 수강할 경우 최종 6차 등록 시 50%할인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i.jejunu.ac.kr>

# 로스쿨 학생들이 “경찰의 공권력행사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 23일 해군기지 관련 성명서 발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30명이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 마을에서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백수범씨를 포함한 법전문 재학생과 졸업생 일동은 지난달 23일 제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군의 구럼비 바위 발파를 계기로 강정마을에서 경찰과 시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채증과 체포 등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적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사진·영상녹화물 촬영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대법원 판례도 현재 법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일동은 “최근 구럼비바위 부근에서의 경찰의 체포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고,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심각하게 다투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체포·연행된 시민 대부분이 범죄혐의가 없어 석방되고 있다”면서 “체포 역시 강력한 강제수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행해야 하며,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동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홍, 백수범, 반희성씨.

이들은 “경찰기동대의 발차기 폭행, 해경특공대의 수중 폭행, 강정다리의 시민감금 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그 불법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김명지 기자

# 제주대의 ‘우생순’ 신화 꿈꾼다

## 불링부 22일 창단

인적·재정적으로 악조건  
“10월 전국대회서 메달 기대”

체육학부(학부장 남사웅 교수)가 지난 22일 불링부 창단식을 가졌다.

이번 창단은 도내 불링을 하는 선수들의 성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상급학교 또는 실업팀이 없어 도외로 나가는 현실상 아쉬운 점이 많아 신설하게 됐다.

불링부는 남녕고를 졸업한 김동호·강문권·임준태(체육학부 1) 선수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고등학교 시절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다. 하지만 불링부를 창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첫 해이다 보니 인제가 많지 않았고 전국대회 성적이 없어 재정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고생이 따랐다.

또 불링부가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시설도 부족한 형편이다. 학교 내에 마땅한 불링장이 없어 학교 밖에 불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원이 3명 밖에 없다 보니 최소 6명이 돼야 하는 전국대회 엔트리를



왼쪽 아래 이중인 감독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김동호·강문권·임준태 선수.

짜는데도 난처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여건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들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굳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이중인 불링부 감독은 역사가 오래된 불링부를 가진 대학 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연습 때 흘린 땀만큼 대회 성적이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면 웃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선수들에게 조언했다.

선수들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동호 선수는 “꾸준히 가르침을 받는다면 앞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링부는 오는 10월에 열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다.

김동현 기자

## 공학교육센터

### 지원대상 선정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안기중)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내 공과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창의적인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사업은 86개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1차 권역별 평가와 2차 전국권 통합 평가를 해 65개의 대학을 선정했다. 이 평가에는 교육여건과 교육교육 혁신로드맵 등 공통필수프로그램 및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최고 매년 2억원씩 10년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예산을 활용해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산학협력 강화 등을 하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안기중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이번 선정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사업이 큰 탄력을 받게 됐다”며 “지역산업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미 조지아주립대 박사과정 입학한 고은주씨

# “학력보다 노력이 중요…세계적 학자 꿈꿔”

“지방대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뭐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죠.”

수의과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오는 5월 미국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당당히 진학하는 고은주(27)씨의 말이다.

지난해 8월 졸업한 고씨는 같은 해 12월 미국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했다. 그리고 무려 3개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가 택한 대학은 조지아주립대, 박사과정 전 기간에 필요한 학비 전액과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으며 연간 3000만원 수준의 급여도 받는다.

“지원할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듯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정말 기뻐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타지 생활은 해본 적이 없어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데, 잘 적응해 가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석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주대에서 곧바로 미국대학으로 박사과정을 밟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정보가 없고, 도움을 받을 산배도 없었다.

“서울은 스티디 그룹이나 학원 같은 것을 통해 미국대학원 시험(GRI)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요. 반면 제주도에 그런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몸으로 부딪치기를 감행해야 했어요.”

그룹에도 불구하고 고씨는 박



사과정 선발 과정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놀라운 성적을 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학업과 연구, 자료 수집에 몰두한 결과다. 그는 수의학과 임학과 졸업시에도 당당하게 수석을 차지한 바 있다. 더욱이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6편의 국제저명논문과 다수의 국내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혼자 공부 해야 잘 되는 편이어서 주로 집에서 공부하곤 했죠. 체질이 아찔형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외국 학생을 받으려고 하면 객관적 지표를 볼 텐데, 꾸준히 유지된 우수한 학점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가 전공할 분야는 신종플루를 포함한 바이러스의 분자발병학과 백신 개발이다. 병균을 주입해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시 위험도는 줄이고 효과는 키우는 방안을 끊임없이 개발해, 사람들이 더 좋은 백신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기여하려고 한다.

“죽은 상태 혹은 산 상태의 병균을 넣어 예방접종을 하는데, 산 병균을 넣게 되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도가 커져요. 대신에 죽은 병균을 넣게 되면 위험도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죠. 죽은 병균을 넣어도 살아 있는 병균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혹은 산 병균일지라도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분열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등 더 좋은 백신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려고 해요.”

그는 열심히 연구해서 이후 이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박사 학위까지 따고 난 다음에는 후배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다들 대학생활을 너무 취업 위주로만 신경 쓰며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젠 지원 받을 길이 많으니까 연구나 공부를 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는 특히 연구환경은 지방대학이 더 나은 사실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예요. 지방대라고 해서 남들보다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김소영 기자

## 배국환 전 차관에 명예행정학박사 학위 수여



이번 학위 수여는 배 전 차관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로 평가 받은 점과 제주도와 제주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배 전 차관은 성공관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

으며, 1978년 대학 재학시절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당시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84년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줄곧 재정담당부서에서 일하다 200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승진했다. 2009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2월 임기보다 1년 앞서 용퇴했다.

배 전 차관은 예산회계법을 50년 만에 바뀐 ‘국가재정법’을 마련하는 등 국가재정 선진화와 지방재정제도 혁신에 핵심역할을 했다.

제주 지역에도 발전에 기여했다. 제주 국도확장사업과 영어마을조성, 제주 공항 확장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적·간접적인 도움을 줬다.

## 빙소진씨 글로벌 박사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우수한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생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빙씨는 학업 및 연구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또 교과부 장관 명의의 펠로우지정서를 받고 컨설팅단을 통해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자문도 지원 받는다.

## 부속시설탐방 17.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예비 창업자 지원…대학생 창업교육도 열어



공과대학 3호관 뒤편에 위치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입지가 약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주대에도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종환 교수)이다.

1996년 11월에 설립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요 사업은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신규 창업자들에게 대학 소유의 기술지원, 업체 필요기술의 개발지원, 대학 소유의 장비제공 및 창업교육, 경영지도,

자문 등 각종 지원을 하여 사업화를 성공시킴으로써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창업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체와의 산·학·연 협동연구 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산업기반 확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에는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주)나노보건환경연구소, 제주유니에어 등 14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생산품도 유해물질 제거제, 항공사진, 인공어초 등 다양하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사업부를 설치

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하고 있다. 과제로별 결과를 도출하고 지적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며 결과 발표회 및 성과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대학생들을 중소기업 체험학습활동에도 참여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에는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계가 준비돼 있다. 머신닝 센터, 공구현미경, 와이어 커팅기, 성형연삭기, 자동전압포장기, ? 적립드릴링머신, 유압절단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콘타머신, 실사출력기, 고속가공기, 자기 운송도 기록계 등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창업 예비자들에 대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고급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현장과 밀접한 기술들도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있다.

임종환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센터장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예비 창업자들과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망설임 없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문을 열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지난 27일 산방산 근처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제공>

## 추사 유배길 영화에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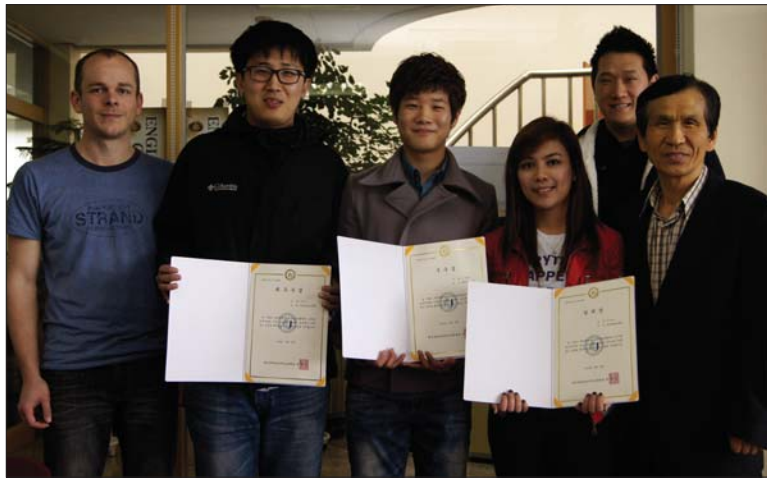
제주유배길이 한·중 합작영화에 소개된다.

신인 김풍기 감독의 ‘길 위에서’라는 영화를 통해 제주 유배길을 담아낼 예정이다. 영화에서는 지진희, 차수연, 황성희(중국어) 주연의 무료 3D 영화로 사랑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 남자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자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 인연을 맺는 한·중 합작영화다.

27일까지 추사유배길 등에서 촬영을 마친 이 영화는 후반 작업을 거친 후 오는 7월 7일 개봉예정이다.

## 동문가족 찾기 신청 30일 마감

제주대가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대 3대 동문가족 찾기’ 신청이 오는 30일 마감된다. 문의=754-2046-7.



제1회 외국어교육원 ‘외국어 강자 수강 성공사례 에세이 공모’ 시상식이 지난달 23일 열렸다.

## “외교원 덕분에 진짜 영어 배웠어요”

‘제1회 외국어교육원 외국어 강자 수강 성공사례 에세이 공모’ 시상식이 지난달 23일 외국어교육원(원장 권영근) English cafe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시상식에서 △ 최우수상에 강건우(정치외교학과 4. 왼쪽에서 두번째), △ 우수상에 김경태(행정학과 3), △ 장려상에 이동민(전기공학과 2)씨가 받았다.

강건우씨는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원 강의를 듣기 전 영어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강좌를 수강하고 나서 영어를 즐기게 됐다”면서 “사설학원의 점수 올리기식 공부와 다른 진짜 영어 성적을 원한다면 외국어교육원 강의를 강추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지 기자



##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u.ac.kr

특성화 사업단 현장 <8> 감귤수출연구사업단

# 유럽 시장 개척으로 ‘감귤 수출’ 새 역사 쓴다

올해산 감귤 수출 3000톤 계약 체결

유럽에서 500억 규모 감귤 시장 예상

겨울이면 손끝을 노랗게 물들이며 까먹는 새콤달콤한 제주의 ‘감귤’. 감귤은 우리나라에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영국에 처녀 수출한 제주감귤은 모리스 백화점에서 최고 가격표를 붙이고 진열했는데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한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은 이제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외국시장까지 나아가기 위해 걸음마를 떴고 있다.

감귤수출연구사업단(사업단장 현해남 생물산업학부 교수)은 제주 감귤이 수출명품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다. 사업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연간 10억원 가량을 지원받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연간 약 1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농가에서 국제수준의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수확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계약에서부터 생산·판매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수출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업단의 노력에 힘입어 제주감귤은 지난해 영국에서 수출 물고를 텄다. 제주 감귤이 영국시장에 수출된 것은 역사상 최초이다. 영국에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2월 사이에 판매하도록 수출할 경우 kg당 18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어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사업단은 기존의 한인슈퍼를 상대하는 수출관행을 벗어나 영국내 430여개 매장을 지니고 있는 대형 슈퍼체인 Morrison과 시험 판매를 진행해 스페인산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0년 사업단의 시험 판매 결과를 보고 올해 3000톤(약 58억원) 규모의 수입오더를 체결했으며, 향후 사업

단 종료시까지 연간 5000톤(약 90억원) 규모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사업단은 올해 영국 수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시장이 열리며 연간 약 2~3만톤(약 5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사업단이 영국시장을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영국이 감귤 수출이 가장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검역이 까다롭고, 농산물 수출로는 최장기간인 45일의 운송을 거쳐야 해서 감귤이 도중에 부패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어려운 수출시장을 첫 타깃으로 설정한 것은 영국을 시작으로 감귤 수출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다.

현해남 사업단장은 “제주감귤이 영국의 까다로운 검역을 통과하고 45일의 최장거리 운송 중 부패율을 최소화으로 낮추는 노력을 했다”며 “제주감귤은 이제 전세계 어느 곳이든 좋은 품질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감귤의 영국 수출이 기본 좋은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생산부터 수출까지 감귤의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단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 그간 감귤 농가에서는 관행적인 방법으로 감귤을 생산·수확해왔다. 이에 러시아와 캐나다 등에 수출시 잔류농약·식물검역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수확을 할 때에도 상처와 물기로 인해 부패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업단은 우선 부패율을 낮추기 위해 수출을 하는 감귤농가에 감귤에 상처를 덜 입히는 수확용 가위를 보급하는 등 수확방법을 개선했다. 또 수확 24시간 이내에 소독약제 처리가 부패방지의 필수기술임을 확인하고 살균 시스템인 ‘농가 현장 적용형 드렌처’와 ‘선과장용 드렌처’를 개발해 현장에



2011년 초에 수출한 제주 감귤을 영국의 한 선과장에서 소포장을 하고 있다.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제공>

적용시켰다. 선과 과정에서 감귤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과시설(벨트형 선과 방식)을 갖춘 선과장에서 수출용 감귤을 선과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더불어 수출 수송과정을 개선하고 수출용 박스도 통기성이 좋고 2톤 이상의 강도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개발·제작했다. 수확에서 수송까지 전 과정에서 걸쳐 부패율을 낮추기 위해 사업단은 부단히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30%를 넘던 부패율이 5%이하로 크게 줄었다.

감귤수출 농가에 글로벌 GAP 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이력제를 적용하도록 한 점도 좋은 성과를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업단은 유럽 수출을 위해 글로벌 GAP 인증을 추진해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33개 농가가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더불어 감귤의 생산이력 정보를 바코드를 통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선과장에서 생산이력 바코드를 입력하면 영국에서 검역과 품질·안전성 검사를 할 때 출력해 생산이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

했다. 글로벌 GAP인증과 생산이력제를 통해 제주감귤은 신뢰도와 가격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사업단은 우선 오는 2013년말까지 감귤 수출 농가를 조직화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출전문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수출전문조직은 앞으로 수입상과의 계약을 통해 제주 농가에서 생산된 맞춤형 감귤을 지난해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은 물론, 전세계를 상대로 수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단은 사업기간인 5년 동안 수출전문조직을 위한 전문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도내 농협들이 수출조직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를 계획하고 있다.

현해남 사업단장은 “감귤수출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이뤄지는 연구와 기술지원은 제주감귤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 막 걸음마를 댔 감귤수출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인터뷰 현해남 사업단장

##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최선”

“감귤수출이 제주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감귤을 수출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감귤산업 발전과 연결돼 있다고 본다. 감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국제수준의 품질을 맞춰야 하고 긴 수송과정 중 부패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수출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감귤 재배·유통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감귤수출은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감귤산업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감귤 수출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느낀다.”

“감귤수출의 한계와 어려움은 무엇인가.

“제주 감귤이 수출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주지역의 감귤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벨트형 선과시설 등 수출에 적합한 감귤을 생산해내기 위한 기반시설들이 제주도내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수출물량을 맞추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일괄적으로 생산·수출을 관리하는 수출전문조직도 없기에 감귤 수출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에서는 감귤을 수출하는 농가를 조직화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출전문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힘과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수출전문조직은 수입상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상이 원하는 맞춤형 감귤을 농가에 생산하도록 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과정을 일괄·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커스트나 제스프리 같은 기업들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수출



전문조직이다. 사업단은 사업기간인 5년 동안 수출전문조직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종료 후 도내 농협들이 조직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영국에서 3000톤(약 58억원) 규모의 감귤을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수출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감귤을 생산·선과할 수 있는 기반시설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도차원에서 선진화된 선과장 등 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감귤수출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힘난한 ‘영국시장’ 개척은 누구도 성공하리라 쉽게 상상하지 못했었다. 까다로운 수출 기준과 장거리 운송의 한계를 극복하며, 제주감귤은 한뼘 더 성장하게 됐다. 감귤 수출을 향한 사업단의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지원은 궁극적으로 감귤 생산기술과 감귤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농가에서 국제수준에 맞는 양질의 감귤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희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6월 5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미친 실행력’으로 추진하라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서경덕 성신여대 객원교수

대학 신입생이었던 1993년은 ‘세계화’라는 개념이 한창 유행할 때였다. 정부와 대기업들이 저마다 글로벌 경쟁을 주창했던 시기였다. 세계가 너무 궁금해 무작정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막상 가보니 ‘중국 인이나, 일본인이나’는 질문을 받았지만 정작 ‘한국인이나’는 질문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이나 중국 못지않은 아름다운 산과 들, 말과 글, 음식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어째서 모를까? 그 이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려야겠다는 간절한 꿈이 생겼다. 여행을 다니며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 묻고 또 물으며 내린 결론은 바로 ‘음식문화’였다. 중국은 세계 각지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이 있다. 외국인들은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의 건축물을 살펴보고 음식을 먹으며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쌓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던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 음식 중에서도 외국인의 취향과 문화에 맞는 한 가지만을 골라야 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바로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고 포장 문화에도 적합한 ‘비빔밥’이었다. 비빔밥 홍보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뉴욕타임스에 전면광고를 실으면서부터였다. MBC 무한도전전의 후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무한도전의 음원을 구매했던 한국 국민들의 후원으로 추진한 것이었는데 그 파급력은 상당했다. 로이터 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에서 관련 내용을 기사화 해 전 세계에 송고하였다. 뉴욕타임스 150년 역사상 자국의 대표 음식 브랜드로 전면광고를 낸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의 한인회 회장들이 광고 원본 파일을 요청해 왔다. 한인회 멤버들이

심심일만 자금을 모아 자국의 유력지에 광고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11개국에서 자국 유력지에 똑같은 광고가 집행되는 감격스러운 일이 실현됐다.

음식문화의 체험 다음으로 손꼽을 만한 국가 홍보프로그램은 바로 ‘언어문화’이다. 미국 유학시절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여곡절 끝에 박물관 언어 담당 디렉터의 비서와 통화를 하게 됐고, 2개월 반 후로 만날 수 있는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약속날짜가 되어 찾아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았다. 비서의 실수로 인해 거금을 기부하려 온 학생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다.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배로 큰 제안을 했다. 계약서를 먼저 써주면 한국에 가서 기업과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아오겠다는 약속이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몇 개월 간 수백 기업을 돌아다닌 끝에 결국 후원금을 받았고, 1년 6개월 만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유지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이후부터는 세계 각 박물관과 미술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쉬워졌다. ‘실패’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뉴욕 현대미술관, 미국 자연사 박물관,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이 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수백만 명이 찾는 박물관에서 한국어를 들을 수 있으면 외국인들은 ‘한국에도 고유한 언어가 있구나’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한국이 문화강국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2005년 2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엄연한 반칙이었기에 그 부당함을 세계인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세계인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력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에 광고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첫



“‘바로’ 추진하면서  
노하우가 계속 생겼다.  
또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광고는 대학원생이 될 때까지 모아뒀던 자비를 털어 전면광고의 1/6 사이즈로 신은 것이었다. 이는 동양인이 자국의 국가 현안을 광고한 첫 번째 사례여서 뉴스로 보도되는 등 큰 화제가 되었다. 그 뒤 지속적인 여론 환기를 위해 캠페인성 시리즈 광고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강연 중에 ‘최초’ 다음으로 많이 강조한 단어가 ‘바로’이다. 세계를 리드하기 위한 요소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친 실행력’이다. 사실 소개한 성공사례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모두 실패한 사연이다. 하지만 ‘바로’ 추진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계속 생겨났다. 또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쫄음’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좋은 직장만 찾아가려고 한다. 연봉이 적으면 어떤가. 주말 없이 일하면 어떤가.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보다 깨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오래 사는 것이다.

## 영화도 읽어야 한다

할리우드 영화와 문화 다양성

정지영 영화감독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배우는 것처럼 영상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영상을 접한다. 기상과 동시에 TV를 틀어놓을 정도다. 뉴스를 떠올리면 아나운서가 같은 멘트를 해도 어떠한 화면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청자가 받아들이는 효과가 다르다. 전 세계 영화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를 제대로 보려면 영상을 읽는 눈을 키워야 한다. 할리우드 영화의 흥행 공식은 이렇다. 만약 액션 영화가 히트를 쳤다면, 그것이 왜 관객의 사랑을 받았는지 분석해서 샘플을 만든다. 다른 액션 영화를 만들 때 인물이나 전개 과정을 조금 바꾼 채 이 샘플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처럼 공식이 있는 장르 영화는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해 낸다. 그래도 사람들은 미국 영화를 찾는다. 바로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관객 수준이 한국 영화의 질을 결정한다. 국장은 수익을 목표로 한다. 검증되어 수입된 할리우드 영화들을 더 많이 극장에 걸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영화 제작이 위축된다. 한국 영화계에서는 외국 영화에 대적할 큰 영화 중심으로 돈을 투자하는가 하면, 투자자를 찾지 못한 저예산 영화들로 나눠지는 양극화도 심해졌다. 하지만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90년대와 달리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5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나타난다. 일본이나 프랑스도 30%를 겨우 넘는다. 결국 관객의 수준이 한국 영화의 수준을 높여준 것이다. 영상을 읽어내는 방법은 사실 일주일만 공부하면 된다. 배워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반복하며 보는 것이 곧 공부다. 영화는 자꾸 볼수록 잘 읽

한다.

장르 영화를 본떠 대중을 즐겁게 하면서도 감독의 개성을 잘 살린 영화가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부러진 화살’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영화이면서 생소한 법정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의 리듬을 잘 보면 장르영화의 성격이 반영됐다. 사실 처음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도 망하지 않기를 빌었다. 실로 오랜만에, 턱없이 부족한 제작비로 천신만고 끝에 찍은 영화였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 350만 명이 극장을 찾아왔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날린 직설의 ‘화살’이 적중한 셈이다.

모든 영화는 그 안에 만든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다. 굳이 가르자면 나는 영화인 가운데서 진보적인 성향을 띠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진보 영화가 아니라 잃어버린 보수의 가치를 찾아가는 영화다. 주인공 김명호 교수는 원적주의자다. 사회가 합의한 것을 지켜 나가는 게 보수라면 김 교수는 말로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다. 합의했지만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따지는 게 진보이다. 김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판대로 해 달라고, 그것도 범으로 먹고사는 판사들에게 법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나만의 시각으로 그리려고 한 것이지, 누구 편을 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자기도 모르게 영화 속 인물에 감정이입이 된 사람들이 한 에피소드를 봤다. 나는 영화를 통해 부당한 권력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주눅 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북돋아 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만든 사람의 세계관, 무의식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감독의 의도가 읽히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개인을 희생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껴야 한다”

영화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 대부분 사실 그대로를 살렸을 뿐이다. 약간의 영화적 각색이 들어갔지만 90% 공판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교도소를 찾아 김 교수와 면회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다. 김 교수는 석공으로 판사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조지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어찌 됐건 사법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재생산했다. 사법부에서는 흥행을 위한 예술적 허구라고 말하더라. 언론에서도 내 영화를 가리켜 진실과 허위의 문제, 영화와 허구의 문제로 많이 떠들었지만 내용은 자신 있게 책임질 수 있다. 이 영화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희생시켜 그들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게 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나는 영화를 통해 현실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논란으로 이어져 파급력을 지니길 바랐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개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 분노해야 한다. 아직 눈에 띄는 효과가 없는 게 아쉽지만 사회 변화의 작은 밑거름은 될 수 있다고 본다.

학술기고 조선의 대일 외교 주역 ‘통신사(通信使)’

1609년 국교 재개 등에 기여… 문화사절 역할도 수행



김 상 조  
국어국문학과 교수

‘통신사(通信使)’는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 사절을 일컫는 말이다. 조선은 건국 이후 사대교린(事大交隣)을 외교정책으로 정하였다. 큰 나라는 섬기고, 그 밖의 이웃 나라와는 평등한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주위에서 사대의 대상인 중국을 제외하고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일본뿐이었다. 그러니까 교린의 대상은 일본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에 있는 나라의 일본과의 관계는 복잡하였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왜구는 국가적인 문제였다. 고려 말에는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일본 정부가 왜구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절은 조선에 들어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급기야 세종 원년에는 군사를 동원하여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반도에 훨씬 가깝다. 이 섬이 언제부터 일본의 영토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본이 영토 선언을 한 적도 없고,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 적도 없이 대마도는 가까운 나라 조선의 땅이 아니라 먼 나라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대마도는 땅이 좁을 뿐 아니라 토질이 척박하여 농사를 지어 주민들이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다에 나가 약탈을 하였다. 이들이 바로 왜구이다. 고려 말기에는 왜구가 국성을 부려 이를 토벌하느라 가뜰이나 허약한 국력을 탕진하였고, 급기야는 왜구 토벌에서 명성을 날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왜구의 침략은 그치지 않았고, 이를 막는 일은 신생국 조선에게 있어 매우 커다란 과제였다. 세종의 대마도 정벌은 그 정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왜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세종은 정책을 바꾸어 매년 대마도에 식량과 피복 등을 제공하여 노력질을 없애고자 하였다. 이때 일본에 다녀온 신축주는 죽을 즈음에 ‘일본과 실화(失和)하지 말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그가 쓴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는 이후 일본과의 외교에서 교과서가 되었다. 이후 조선은 임란 전까지 통신사(通信使), 회례사(會禮使), 보빙사(報聘使) 등의 이름으로 60회가 넘는 외교사절단을 일본으로 파견했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통신사 단절

임진왜란은 조선의 입장에서 청천벽력이었다. 교린국 일본이 갑작스럽게 침략한 것이다. 임란 이후 조선의 조야에서 일본을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전후 양국간 우의는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전쟁으로 두 나라 사이에 외교가 단절되자 생존의 상당 부분을 조선과의 무역으로 해결하던 대마도는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대마도는 전쟁이 끝난 다음 해부터 조선에 사신을 보내 국교 정상화를 요청하고, 국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1599년 조선에 국교 회복을 희망하는 일본의 국서를 올렸다. 전쟁이 끝난지 1년이 채 안된 때였다. 조선은 이를 무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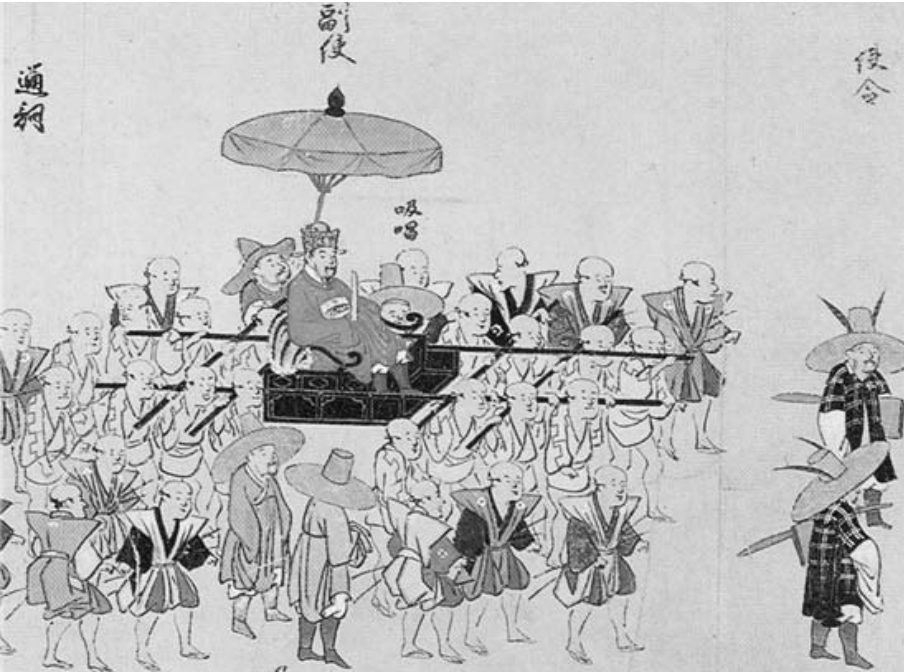
이듬해인 1600년 2월 대마도는 다시 국서를 보내왔다. 지금의 일본의 권력을 잡고 있는 덕천가강(德川家康)은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저지른 조선 침략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런 덕천이 양국간의 화해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함께 160여 명에 이르는 피로인(被虜人, 전쟁 중에 잡아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의미)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대마도는 10여 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강화를 요청하는 사신을 보내왔다.

마침내 조선은 1604년 일본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외교사절단을 보냈다. 사절단 이름은 외교사절에는 걸맞지 않는 ‘탐적사(探賊使)’ 즉 도적의 동향을 탐지하는 임무를 띤 사절이었다. 그만큼 조선의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컸다. 그러나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일본에 대하여 적대감만을 굽잡고 있을 형편이 아니었다. 왜란 중에 세력을 키운 만주의 오랑캐 후금 세력이 나날이 강해졌다. 조선으로는 남쪽으로 적을 막아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 조선으로서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1604년 탐적사는 승려 사명당이었다. 그는 1605년 교요도에서 덕천가강을 만나고, 3000여 명이나 되는 피로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통신사 재개를 위한 노력

이후 조선은 국교 재개를 위하여 ① 일본 국왕 명의를 국교 정상화를 요청하는 국서를 보낼 것, ② 전쟁 중의 피로인을 돌려보낼 것, ③ 왕릉(즉 선정릉(宣靖陵)) 도굴범을 잡아 보낼 것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이 세 조건 중 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먼저 국서를 보내 수교를 요청하라는 것은 덕천가강이 지난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쟁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다. ②와 ③은 그에 따르는 부대 조치라고 할



일본 에도시대 말기 때 조선 통신사 행렬도. 이는 조선시대 마지막 통신사들의 행렬하는 모습이 되는데,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행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 ‘푸른별 동불세상’에서 발췌>

것이다. 둘째는 국왕 명의를 국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과 책봉의 체제 안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이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조선과 평등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세 가지 조건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책봉 제제의 요구는 일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피로인 문제도 이미 일본에 와서 10여 년을 살면서 뿌리를 내려,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자까지 있는 마당에 어떻게 돌려보내며, 이미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또 전쟁 중에 도굴을 한 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 잡아 보낼 것인가? 그들을 잡는다면 명령을 내린 자는?

그러나 대마도는 어려운 조선의 요구 조건을 간단하게 해결하였다. 국서는 가짜로, 피로인은 일부로, 그리고 도굴범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를 도굴범이라 하여 조선으로 보냈다. 조선도 국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고려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요구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강화 회담을 하였다. 이후 양국간 국교 정상화는 금물살을 탔다. 1607년 경섬(慶選)을 정사로 한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이 사절단은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보내온 국서에 대한 회답과 피로인을 해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답 겸 해환사(回答兼刷還使)라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1609년 드디어 양국간에 기유약조(己酉約條)를 맺어 국교 재개를 하기에 이르렀다.

가짜 국서를 매개로 한 강화는 국가간의 외교에서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국서 위조가 드러난 것은 대마도주 종씨(宗氏)와 그의 가신 유천조홍

(柳川綱興) 사이에 대마도를 놓고 벌인 싸움으로였다. 유천이 종씨의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막부에 종씨의 국서 위조 사건을 폭로한 것이다. 그러나 막부는 의외로 종씨의 편을 들어주고, 반기를 들었던 유천을 귀양 보내는 것으로 끝을 냈다.

이러한 일처리는 의외라는 느낌을 준다. 어떻게 국서를 위조한 도주에게는 아무런 징벌을 가하지 않고 실무 담당자에게만 벌을 내릴 수가 있는가 말이다. 이것은 막부의 입장에서조차 조선과의 국교 정상화가 매우 절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후 조일 두 나라는 1711년 ‘의례개정’과 같은 파동도 있었지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통신사는 외교관으로서의 공식적인 일 말고도 조선의 문화 사절로 그 역할을 특목히 하였다.

제국주의로 인한 통신사의 완전한 파국

이 우호관계는 1811년 마지막 통신사행 때 깨졌다. 당시 통신사는 일본 본토에는 가지 못하고 대마도에서 국서를 전달하고 돌아왔다(이른바 ‘역지통신(易地通信)’). 이후 양국간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아 끝내는 식민지 지배라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조선 후기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격변기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국제 정세에 무지하였다. 그런 무지몽매한 인사들이 국정을 담당한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 아수같은 제국주의의 시대에 지도자가 국제 정세를 잘 알았더라면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누구 대담해 줄 본 안 계십니까?

한 권의 책

1분 1초도 아끼며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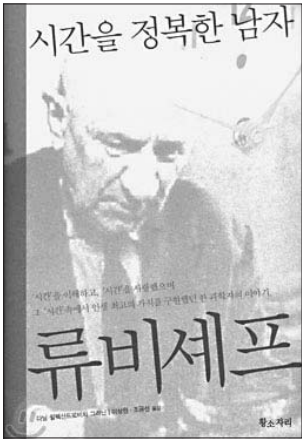
오늘도 아침 6시에 기상해서 8시에 연구실로 출근을 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가장 먼저 시간 계획을 세워본다. 8-10시: 논문 작성, 10-12시: 강의 준비... 나는 2004년 3월에 처음으로 이 책의 독서를 끝냈고, 2005년 9월에 두번째로 읽었으며, 2012년 3월에 다시 책을 잡았다.

‘류비세프는 인간이 집중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본보기였고, 연구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인 달레탕트였다’고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그를 칭찬하였다. 그는 곤충분류학자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뾰팽에 깊이 파고드는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학문을 넓고 깊게 연구하였다. 그는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학문 연구 도중에 틈틈이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들을 베끼고 깨끗이 정리하여 기록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좋아하였다. 82세에 생을 마친 그는 마지막 몇십 년 동안에 가장 높은 학구열과 창의력을 보여주었다.

류비세프는 26세였던 1916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는데, 일기의 핵심은 바로 시간 사용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해 준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사라지고 마는 시간뿐이므로 언제 어디서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하여 일기를 썼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에 반비례하여 시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므로, 그는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하여 업무를 여러 부류로 나누었다. 그 결과 깊은 사고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제1업무, 즉 순수한 연구에만 5시간 30분 정도를 매일같이 할애하였다. 그는 매달/매년 시간 결산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몇 쪽을 몇 시간에 걸쳐서 썼으며 어떤 공연을 몇 차례 보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어디를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하였다. 매년 기록된 이 시간통계를 하나하나가 바로 한 사람이 일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읽고, 보고, 알 수 있는지... 인간의 잠재력을 증명해 주는 증거물이었으며, 류비세프에게 시간통계는 자기 모습을 비취주는 거울과도 같았다.

그는 늘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다닐 그라닌 지음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세프』

어주는 시간통계 방법 때문에 어디든 자신이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고 무엇이든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실현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시간통계 방법 덕분에 그는 외부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책을 놓고 앉아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즉 자그마한 공간과 평온함이면 충분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소비자이다. 전체 시간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양은 극히 적고 대부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사람이라 해도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법이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지나간 한 해 역시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끼며, 늘 다음번으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해가 바뀌고 마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나 류비세프에게는 시간이 늘 충분했다. 시간은 부족할 수가 없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졌든 그동안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점이 류비세프가 가진 시간의 특징이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류비세프의 자연과 시간에 대한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 주어져도 무슨 일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이미 늦어버린 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류비세프는 시간통계라는 방법을 통하여 도구가 아닌, 창조의 가능성으로서의 시간을 사랑하고 아꼈다. 끝으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곤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러시아의 과학자 류비세프를 존경하며 그를 알아보고자 노력하기를...

김명숙(생물학과) 교수

2012  
신간모음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건축계획론

개정판

건축계획론

김태일 지음

제주대학교출판부

생활패턴과 삶의 공간이 변해가는 사회변화를 건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다룬 책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에 중점을 두면서도 새롭게 내용들을 추가한 책이다.

저자명: 김태일 지음 / 평가: 16,000원

해양생산기기학

수정증보판

해양생산기기학

김용해·서두숙·이래해·조봉근·이창현

제주대학교출판부

수산계 대학에서 어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강의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어선어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참고서로도 이용되고 기본적인 사항의 이해에 중점을 둔 책이다.

저자명: 김용해, 서두숙, 이래해, 조봉근, 이창현 지음 / 평가: 14,000원

형사소송법 강의

【증보 개정판】

형사소송법 강의

김현수 저

제주대학교출판부

이번 제 3판은 그간의 판례 동향과 학술의 흐름 및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중요 판례의 요지를 각주에 가급적 많이 인용하여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였다.

저자명: 김현수 지음 / 평가: 20,000원

## 정당에게 듣는다

19대 총선이 오는 11일 치러진다. 각 정당에서는 최적화된 공천 후보를 지역구에 내보내고 있다. 또한 정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에 제주대신문에서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4개 정당(자유선진당은 마감 시간까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에 지역과 대학, 청년을 위한 정책에 관해 질의를 했다. 청년들은 취업 등 여러 부분에서 힘들어 한다. 이 때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는 젊은 층이 정당을 판단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각 정당의 정책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 청년취업센터 통해 일자리 창출

① 청년취업 문제 해결은 새누리당의 4·11 총선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다. 취업문이 좁아보니 학점, 자격증, 공인외국어성적 등 스펙에 매달리고 있다. 또 지방대 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학벌과 스펙 때문에 불평등을 겪고 있다. 청년들의 잠재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학벌과 스펙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열정과 잠재력으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멘토들이 6개월간 실기위주의 현장형 및 충교육을 실시하는 정부·민간 합동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 여기서 양성된 인재들을 ‘청년인재은행’에 등록·관리 하고 5~10% 내외의 등록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의무채용 및 민간 기업 채용 확대를 유도할 생각이다. 우수 민간 기업과 50여개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망을 ‘ONE-STOP 일자리 정보망’으로 통합·구축할 계획이다.

②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계속 낮춰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이미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약속했다. 다소 많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다음 세대의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등록금 부담 추가 인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은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예산 투입을 하는 대학들의 자구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다.이런 새누리당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아

### 등록금완화 정책 지속적 추진

### 법인화는 신중한 접근 필요

### 집권여당 국회의원만이 현안 해결 가능

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학점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게 하고 금리를 현행 3.9%에서 2.3%로 더욱 인하하도록 하겠다. 또 대학생 보금자리와 기숙사를 확충해 등록금 걱정과 하숙집 걱정 없이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③ 제주대 법인화는 제주사회 모두의 문제이며 제주대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대는 자산이나 재학생수가 많은 편이 아니므로 법인화시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지역 실정을 정부와 중앙당에 전달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④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원도심 재정비 촉진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가까운 장래에 유사한 대규모 재정비 사업계획이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는 단계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제주대에서 제시한 도심캠퍼스 조성방안 및 제주의료원 본원 이전이라는 제주도의 계획은 모두 예산조달 등의 난제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제주대병원원 소수권의 문제라든지 예산조달방안의 현실성을 감안해 현재 가능한 방안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구 제주대병원이 있었던 위치에 예술디자인대학을 완전 혹은 부분 이전시키고 그 일대를 음악 공연, 미술작품 전시, 연극공연을 즐길 수 있는 예술공연 거리로 육성할 생각이다.

⑤ 2019년이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를 맞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사안이다.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한·미 FTA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는 물론 제주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된 통합형 제주 6차 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 유네스코 3관왕,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청정 제주의 강점을 홍보하고 연계된 녹색성장산업의 활로도 놓아야 할 것이다. 구도심과 서귀포산남을 살리기 위한 도민사회의 총의를 모으고 특별자치도 실질적 추진과 4·3의 완전한 해결 등 진정한 제주 사회통합을 위해 합리적인 도민 공감대 마련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⑥ 지난 8년동안 민주통합당 현역국회의원들의 무능과 태만, 대중앙 질풍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주사회는 퇴보했다고 느낀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집권여당 국회의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도민의 이름으로 심판받고 반드시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주춧돌을 놓아서 잃어버린 8년 제주를 구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질의 내용>

① 현재 학생들의 취업이 매우 어렵다. 제주대의 경우 2011년 하반기 기준 취업률이 50.6%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정당에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정책과 공약들이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정당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펼칠 것인지 설명해 달라.



### 기업·기관 3% 고용할당제 의무화

①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외주화 추진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청년들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아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재벌 대기업들의 수출은 늘어나고 이윤도 늘어났지만 그것이 곧 고용이나 내수경제 진작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제구조만 고착화시켰다. 아울러 현행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민주통합당은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 고용할당을 의무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청년고용부담금제를 신설해 3년 평균 청년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고용 촉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청년 취업과 관련 이러한 제도 이외에도 스마트그리드 거점화 사업 유치 등 국가 중요 사업을 유치해 청년고용을 대폭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 강남구와 창원시 사래 등을 준용해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센터 조립법법을 추진해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창업 인큐베이팅 및 실태조사 연구사업등을 가능케하고 취업 교육 및 집중 취업알선, 청년취업 기업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또 청년고용촉진조례를 입법화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할 생각이다. 상위법에서 도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상에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 정부의 친재벌 정책 갈아엎어야

### 현행 50% 삭감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 법인화 추진 전면 재검토하겠다

②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로 비싼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도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했으나 이는 등록금 인하조치와 거리가 먼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줄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이다. 이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다. 또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가 반값등록금 대신 2010년도부터 ‘취업후학자금상환제’(이하 ICL)를 도입했으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주통합당은 ICL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통합해 ‘등록금 후불제’로 일원화하고 타부처 정책규모 수준과 실질적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2~3%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ICL 대출을 이용하는 군복무자에게만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방침을 개선해 모든 군복무자에게 학자금대출 금리를 면제를 추진하겠다.

③ 법인화는 대학의 공공성 훼손과 등록금 인상 및 기초학문 붕괴 등 국립대의 역할을 왜곡·축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법인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④ 구 제주대병원을 창작 레지던스, 소공연장 및 전시 등으로 활용해 그 일대를 예술 창작과 예술의 거리로 만들겠다. 또 용담동과 삼도동을 아우르는 역사문화벨트를 형성한 원도심 재생방안과 연계시키겠다. 제주시에서 구 제주대병원과 관련해 용역 등을 진행시킨 바 있지만 이를 실행할 예산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에서는 국가차원에 ‘(가칭) 지역재생법’ 제정해 국가차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⑤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인한 주민갈등과 사회분열이 심각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이5당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절차의 왜곡과 부실, 환경과 괴 문제 등에 대해 이를 규명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해 공사중단·전면재검토 입장을 중앙당 차원의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6년째 큰 통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⑥ 이명박-새누리당 정부하에 국민의 삶은 파탄으로 내몰렸고,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 또한 독재시대로 후퇴하고 말았다. 앞으로는 새로운 복지국가 및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때이므로 민주-진보세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적이다. 이번 총선-대선은 한나라당이 새로운 1%의 특권층만 잡사는 사회가 아닌 99%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사회를 만들어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갈림길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이번 선거에 우리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투표참여야말로 ‘내 삶이 바뀌는 변화’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 청년·대학·지역 정책 6문 6답

②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 도입이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각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나 대학생이나 대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가.

③ 국립대를 국가에서 분리해 예산은 물론, 조직·인사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정부는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대는 교육시설 및 교육재원 등 여러 가지로 취약하다. 법인화가 실제 이뤄진다면 지역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의견은,

④ 제주대병원이 부지를 옮기면서 구 제주대병원이 들어섰던 삼도동 주변 상권이 침체를 겪고 있다. 구 제주대병원 활용방안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⑤ 정당이 제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인가.

⑥ 청년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정리=김동현 기자



###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나누기

① 청년실업 문제는 비단 제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정된 일자리에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동시간, 정부의 적극적 정책과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문제가 확산됐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에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의 양적 증대가 따라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대폭 확충, 공무원 교사 등의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원,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국회에서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② 통합진보당은 반값등록금 쟁취를 사회적 이슈로 쟁점화한 주체다.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와 한국대학생연맹 등이 주축이 돼 촛불집회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으며 총선 공약으로 이를 공표한 바 있다.

또 기성회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법인전입금 확충 및 사립대에 법적 운영경비 부담을 의무화하겠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③ 통합진보당은 법인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오히려 권역별 계열 특성화에 기반해서 국립대를 확장시키고 무상교육을 확대·실시 등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반값등록금 이슈화는 우리가 원조

### 법인화는 원칙적으로 반대

### 투표참여로 대학생 목소리 높여야

국립대 간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립대의 전반적 수준을 상향평준화시켜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사립대 일부 특성화 대학을 제외하고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④ 구 제주대병원 이전으로 인근 상권이 침체되고 있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는 문화계 등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돼 왔으며 이번 총선 및 재보선에서 후보들의 주장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이는 특정 정당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문제라고 본다. 또 각계의 의견과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중앙로 등 구 시가지의 상권 부활 등을 위해 산지천-문문시장-용담 등을 잇는 관광문화벨트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으며 구 제주대병원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⑤ 제주지역의 시급한 현안은 강정 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본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에 합의하면서 해군기지 전면재검토를 공동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면재검토를 위해서 정부와 해군 측의 즉각적인 공사 중단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삼성 측의 바지선 운항이 불법으로 드러났고 크루즈항 입출항 감증을 해군과 제주도가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군 측은 계속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제주도민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 공사강행으로 인해 연행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벌금부와 등으로 강정주민의 삶이 파헤쳐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해 여소야대 국회를 이루면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엄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규명 및 처벌, 해군기지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이뤄내겠다.

⑥ 청년은 미래의 동량이자 희망이다. 청년실업 등 각자가 직면한 고통이 매우 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인해 스펙을 쌓는 등 취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측면도 없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주체가 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또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특히 청년세대의 투표 참여 등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를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개척하기 나름이다. 청년세대의 문제,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춰야 하며 해결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참여민주주의시대에 걸맞게 참여만이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학력차별금지법 통해 사회통합 기여

① 진보신당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해 학교를 ‘인간 발달’과 ‘공동체적 협동’의 기초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유아, 초·중·고, 성인 교육 등 각 발달 단계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유아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는 학제를 만들겠다.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하고 싶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고 학벌제를 폐지하는 학력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 제도가 확립되면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대를 통합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하고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를 실시해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 체제 및 학벌 사회를 해소하겠다.

② 덴마크, 핀란드 등은 대학 수업료가 무상이다. 또 체코, 폴란드 등 한국보다 GDP가 낮은 나라들도 국공립대는 무상이다. 지금 무상은 못할지만 반값 등록금은 실현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대학생 누구나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를 정부가 지원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겠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이마저도 내기 어려울 것이다. 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등록금제를 도입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 또 정부 재정은 부실사학의 돈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립대학 법정전입금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부실대학은 국공립대로 전환하거나 퇴출시키겠다.

③ 이미 국립대들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에서는 학교통폐

### 상한제 도입으로 등록금문제 해결

### 법인화 정책 없애고 국립대 재정 강화

### ‘부자를 위한 정치’ 심판해야

합 등과 같이 비용절감을 위한 반교육적 제도를 도입하거나 일부 인기학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시켜 학문의 다양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국립대를 법인화한다면 그 뒤를림은 더 심각해진다.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교육을 시장경제에 떠넘기는 것으로 국가가 교육 포기하는 정책이다. 또 유명 사립대들이 엄청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도 기존의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때문에 국립대 법인화를 중단시키고 현재 시행중인 독립채산제를 폐지한 후 국가 차원에서 국립대에 대해 형평성 있는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립대 내에서의 학과서열화, 대학 서열화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고 지방국립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춰갈 때 수도권 중심의 사립대로 몰리는 교육편중 현상이 해소되고 사립대의 비정상적인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은 지방국립대를 내몰게지는 정책으로 도민사회와 함께 반드시 막아야 할 정책이다. 진보신당은 반드시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전면에서 막을 생각이다.

④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서울에는 ‘홍대’라는 거리가 있다. 그 곳에서 청년들은 청년문화를 꽃피우고 그들의 문화 창고로서 활용한다. 구 제주대병원 길목이 이러한 문화를 꽃피우는 적절한 곳이라고 본다. 각 대학에 지원서를 보내고 이를 검토해 그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상권 뿐만 아니라 제주에 청년 문화의 출발지 및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다.

⑤ 현재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 더불어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중계약서 체결, 설계오류, 환경영향평가위반, 문화재법위반, 주민 1년 농사피해, 주민들 사유재산 헐값에 강제수용, 유네스코 생물보호 완충지역 침해, 잔·반 주민으로 갈등, 막대한 세금낭비사업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국제토건사업 특별법 제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 복원 시행 근거를 마련하겠다. 해군기지 및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중단 및 백지화, 생태 복원에 힘쓰겠다.

⑥ 국회의원들을 선거 때가 되면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총’이 되겠다고 계속 말한다고 다닌다. 땅에 닿을 듯 고개 속에 인사하고 두 손을 꼭 잡으며 찍어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대부분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 국민의 상전이 돼 서민의 삶은 뒤돌아보지도 않는다. 선거 때는 ‘서민을 위한 정치’ 당선되면 ‘부자를 위한 정치’를 했던 게 바로 현역 국회의원들이었다. 진보신당은 결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전체 국민의 99%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정치적으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평화로운 평등공동체, 사람과 자연이 서로 평화로운 생태공동체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돌보고 모시는 연대공동체라는 사람다운 정치가 실현됐으면 한다. 제주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다.

## 무론유설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

이 세상에 난 사람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고 나이 들어감이다. 10년 전, 20년 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연륜을 ‘삶의 지혜’라고 뿌듯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사가 모두 그렇듯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한 발자국 물러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은 젊은 시절에 가졌던 비판정신과 뜨거운 감성의 상실을 대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흔히 삶의 연륜은 이러한 비판정신과 감성의 ‘포기’를 정당화하는 자기합리화 논리인 지도 모르겠다. 부조리한 것으로 공격했던 체계(system)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조리함’의 인식과 비판이 아직 연륜이 부족했던 젊은 날의 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는 아닐까?

## 기자칼럼



강민성  
언론홍보학과 2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용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에서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 결과 검정을 신청한 39종 교과서 중 21종이 통과돼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 등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신게 됐다. 결과적으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 총 103종 가운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은 교과서가 3종이 늘어나 47종이 됐다. 염려되는 것은 이번에 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62% 교과서가 내년에 나 내후년에 검정을 신청할 예정이란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추

## 올챙이 적을 기억하는 개구리

어렸을 적 느꼈던 부모님의 권위주의적이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 들어 아이를 갖게 되면 모두가 그때의 부모님처럼 행동하게 된다. 어쩌면 이것도 권력인지도 모르겠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모든 권력은 달콤하다. 그래서 그 권력 때문에 고통받던 시절을 보상하기 위해 권력의 부조리함을 쉽게 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학부 졸업 후 잠깐 떠나 있었던 2~3년을 제외하면 대학교 때와 맺은 인연이 20년이다. 그동안 학생, 비정규직 교수, 그리고 이제 정규직 교수까지 다양한 위치를 경험했다. 물론 20년 중 대부분을 학생 신분으로 지냈다. 학부, 석사, 박사를 거친 시간이 14년이 넘는다. 돌이켜 생각해 본다.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분명 20대 초반 가졌던 뜨거운 가슴이 남아 있지는 않다. 불의를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덩벼들던 그 시절의 ‘용기’를 가지기엔 너무 나이 들어버린 것이다.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을 쓸 때, 도서관을 오르내리고 자료를 찾아 헤메면서

느꼈던 묘한 희열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이제 글을 읽고 논문을 쓰는 것이 스스로의 창의적 행위이기보다는 직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강사 시절의 고단함이 나의 이름이 새겨진 연구실 문 뒤의 안락함 속에 사라져 간다.

나이 들어감을, 지위와 위치가 변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20대 청년의 눈에는 부조리한 것이 삶을 지탱하고 공존하는 지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망각하는 것은 연륜과 지혜라고 기성세대가 정당화하는 그것이 젊은 시절의 비판, 도전, 열정이 없는 연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인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20대의 젊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을 쌓고 스스로를 잘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것이 아닌 체제에 대한 저항과 비판정신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기성세대의 잘못은 자신들이 충분히 향유했던,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젊은 시절의 비판과 저항의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해하기는커녕 이미 남아버린 자신들의 기준으로 비판과 저항정

신의 ‘거세’를 강요한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회학 교과서는 사회학의 기본정신을 ‘비판’이라고 말한다.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는 학문의 성격상 비판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학만이 비판적인 학문은 아닐 것이다. 대학 전체가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소통되고 토론되는 열린 공간이어야 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생산되는 지식은 현실을 정당화하기보다는 비판해야 한다.

우리의 대학은 어떤 모습일까? 대학이라는 체제 안에 가장 안정된 지위를 갖게 된 지금 나는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왜소하고 나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해 본다. 최소한 올챙이 적을 기억하는 개구리가 되자고. 20대에 누웠던 비판과 저항의 자유를 학생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미안해할 줄 아는 선생님이 되자고. 하지만 이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 역사의 진실을 비웃지 마라

세여서 앞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과연 어떤 주장을 하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것일까? 일본은 1905년에 발표한 ‘북위 37도9분30초, 동경 131도55분, 오키시마(隠岐島)에서 서북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다는 자취가 없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 편입해 다케시마(竹島)라 부르고 시마네현 오키도사(隠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말하고 있다. 일본은 당시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독도를 먼저 차지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혀 타당치 않다. 독도의 주인이 누구지 역사가 명백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

이다. 고대부터 대한제국까지 우리 역사 문헌을 보면 독도를 ‘우산’이라 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했으며 독도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또한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고 있는 상태였고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대한제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것은 강탈이다. 외교권이 없어 주장을 못하는 대한제국의 상황을 틈타 독도를 불법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 친부모가 있는 독도에게 어느 날 낯선 부부가 와서 ‘내에선 부모가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난 내 새끼다’라고 말하며 유괴해 간 격이다.

일본은 감히 역사를 무시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다. 이를 어쩌하면 좋을까? 우리는 단순히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고만 외쳐야 할까? 아니다. 우선 독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 독도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널리 퍼뜨려야 한다.

당신은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당신은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깊게 공부하면 된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 자여,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에 틀림없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한국땅!’ ‘獨島は韓國の領土だ’

## 독자기고



문재웅  
정치외교학과 1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안보 이유를 들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반발한 국내의 시민단체와 강정마을 주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발파작업 일시 중지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군은 구럼비바위 밑 갭속이 폭탄을 넣어 터뜨리고 있다. 경찰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차별적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

문화계와 종교계에서도 이것에 심히 우려

를 표하고 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씨는 시위 중 경찰에 연행되어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문화계에서는 단식투쟁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집회를 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대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제주해군기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해군기지가 우리 구럼비바위를 파괴하고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해도 편찮을 만큼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물론 경제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먼저 경제적으로 본다면 민

군복합형 해군기지는 제주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해군기지에 상주하는 장병들로 인해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다. 안보적 가치도 본다면 갈수록 심화되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해군기지 건설의 이유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밥을 굶고 있는가. 아니면 집이 없는가. 강정마을을 그리고 제주도 주민들 모두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한들 우리가 싫는데 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행하는가.

힘에는 힘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은 낡은 생각이다.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위한 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군이 나라 하나 지키지 못할

만큼 나약해 빠졌는가. 평화의 섬 제주도가 아닌 우리나라에 강한 군대가 있으면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은가. 게다가 현대는 평화를 요구하는 시대다. 물론 국가 간의 갈등은 심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은 주변국들과의 협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외교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이어도를 넘보고 있다는 것을 해군기지 건설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과한 오버다.

우리를 생각해서 구럼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지 말라. 대신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만 그 손아귀에서 구럼비를 놓아줄 순 없는가.

## 영어공부에 눈뜨게 한 외국어교육원

장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토론했다. 수업의 난이도는 다소 어려웠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주장도 반박해보고 경청하는 수업이 매우 흥미 있었다. 그러면서 수업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나는 다양한 국내외 이슈에 대한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

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제4회 한미학생회의라는 한국 및 미국 대학생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가를 하기 위해 Tony에게 추천서를 부탁해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제주대학교 대표로 한미학생회의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는 정치 원탁회의의 팀원으로서 한국 측의 시각으로 북한 핵 문제와 통일 문제 등을 미국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 미국 친구들과보다 유창하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말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Media discussion과 오성철, 허성심 선생님의 CNN&TIME 강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CNN&TIME 강좌에서 올바른 문법과 전문적인 단어 공부를 할 수 있어

서 회의 기간 동안 교수님의 강의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제주대에서 일주일간 머무를 때는, 한국 미국 대학생 50명의 대표단 앞에서 제주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회의 기간 동안, 나는 다른 한국대표단 친구들과 다 영어실력은 다소 부족했지만 끝없이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에 제주대 최초로 제5회 한미학생회의 집행위원에 선발되었다. 비록 미국 친구들과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힘들지만 나는 정말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열심히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6년 전, 입학 후 처음 본 토익 모의고사 점수는 370점이었다. 2년 전부터 외교원에서 꾸준히 강의를 듣고 공부하기 시작한 후 지금 나의 토익 점수는 925점이다. 토익 점수가 영어실력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나는 토익강좌를 듣거나 사설학원에 다닌 적도 없다. 그냥 외국어교육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어 과목을 즐기면서 배우려고 노력해 왔다. 제주도에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

는 많은 곳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외국어교육원처럼 양질의 영어 수업들을 학우들뿐 만 아니라 도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곳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원은 원어민 강사님들의 무료 강의와 따뜻한 커피가 있는 3층 English Cafe와 심지어 성적우수자에게는 상금도 주는 모의토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어교육원에 서 많은 것을 얻은 선배로서 일반 학우들에게 외국어교육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외국어교육원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외국어교육원이 내가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의 한계에 도전하게 해주었고 그 결과 나는 대기업 상사 혹은 해외영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결정하게 되었다. 영어에 고민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학우님 여러분, 지금 당장 외국어교육원으로 찾아와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Beyond your boundaries.

## 동문칼럼

## 동네 DJ와 라디오스타

저에게는 인생을 바꿔준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순댓국집 남자가 집으로 돌아왔고, 비 오는 날 엄마가 보고 싶어 우는 청록다방 김양의 눈물이 우리를 울렸고, 꽃집총각의 장미꽃 프리포즈는 무언가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영화 ‘라디오스타’는 시선을 사로잡는 액션이 없었고 파격적인 변신이 있었던 그런 영화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였고, 한물간 락스타의 부활기가 아닌 사랑과 정이 전파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전해준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네방송의 시작은 바로 정(情)이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DJ 최재혁입니다. 싸다! 무사 아직 몰람수파?”

라디오 전파를 타고 울려 퍼진 저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여러분의 궁금증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좋은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DJ는 거창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이고, 이웃이라는 친근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은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틀을 벗어난 저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또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청이 곧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진리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

최재혁  
정치외교학과 95학번  
JIBS 아나운서



며 나를 돌아봅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들이 저를 깨우치고 반성하게 만들었지만 2012년을 시작하면서 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기 원치 않으면서 왜 평범한 노력을 하는가?”

지금은 평범하게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특별함을 갈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중에는 평범함으로부터의 탈출이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평범한 내가, 평범한 하루가, 평범한 외모가 싫고,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삶을, 특별한 무언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사연은 아마 사랑이야기 다음으로 많은 이야기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의 아이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평범한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그 무언가는 더 특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과 다르지 않겠조? 특별해지고 싶다면 특별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갖게 된 욕심은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더 많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향기를 뿜어낼 것이고, 상상력은 보다 더 창의적인 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 향기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비바람에 맞서고 풍성한 열매를 함께 맺고, 그들은 더 많은 상상 속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상상력 그리고 노력은 분명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믿으면서 오늘 밤도 동네 DJ는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 독자의 눈

## 독자와 소통하는 열린 지면 기대

얼마 전 학교 앞에 걸려있는 총장 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참여를 거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 총장 직선제가 무엇인지 검색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학생회관 입구로 들어설 때, 제주대신문 1면의 ‘총장 직선제 23년 만에 폐지’라는 제목을 보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후 신문 한 부를 집어 읽었다.

이처럼 제주대신문은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양질의 콘텐츠 중 하나이다. 제주대신문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슈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3월 22일자 신문에서는 중앙위원회에서 낸 성명을 정리해 총학생회장의 인터뷰와 함께 실은 기사가 보도돼 중앙위원회 성명에 의문을 가졌던 내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줬다. 또한 태양열 발전 설비공사 관련 기사는 학우들이 몰랐던 정보, 장애학우들의 얘기 등을 다뤄서 유익했다.

가장 좋았던 기사는 이번 해에 새로 출범하는 학생자치기구의 인터뷰로, 지난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입생들에게는 간략하게 각 자치기구의 역할과 공약을 알릴 수 있었고 선거에 참여했던 재학생들에게는 우리 손으로

김수아  
국어국문학과 2



직접 뽑은 사람들의 각오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알찼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사의 질에 있다기보다는 제주대신문이 제주대 학생들에게 많이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아이라인 중 과연 몇 명이 학보를 보고 교내소식을 접할까? 당연히 학생들이 학보로 교내의 소식을 접하고 정보를 공유는 모습도 보기가 힘들다. 이것은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학보와 학생간의 소통이 적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 제주대신문만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현재 갖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 뿐 아니라 다양한 SNS 계정을 만드는 등의 시도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제주대신문이 대학 구성원의 총명한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글을 마친다.

##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외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학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신문에 게재된 독자기고에 대해 2만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press@jejunu.ac.kr



## 4·3의 아픔이 몸에 새겨진 사람들



4·3 당시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현재까지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불인정자로 남아 있는 고태명(71)씨. &lt;탐라사진가협회의 제공&gt;

##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서도 ‘불인정자’ 낙인



무장대의 폭력에 찢린 후유증으로 등뼈가 울통불통 튀어나와 평생 제대로 누워 잠을 자보지 못했다는 고순호(85)씨. &lt;탐라사진가협회의 제공&gt;

4·3의 아픔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4·3 후유장애인. 그들의 삶은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삶 자체가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그 상처를 공식적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연이다. 4·3 후유장애 불인정자들은 아직도 몸과 마음에 새겨어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숨죽여 살고 있다.

고태명(79)씨는 17살 때 산사람을 따라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산사람이 도망간 사이 경찰은 고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에 총을 쏘았고, 그는 관통상을 입는다. 경찰서에 잡혀간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뼈라(선전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는다. 전기, 물고문과 함께 가해지는 온갖 구타는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두려움으로 남아 있다.

고씨는 그런 4·3의 아픔을 몸에 새겨둔 채 젊은 시절을 살아왔다. 중년이 들어서부터는 그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없으며, 잘 견디지 못하는 수준이 되고야 말았다. 그러나 고씨는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검증을 맡은 4·3 중앙운영위와 대학병원은 그의 다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명해 버렸다. 외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림읍 금악리에서 태어난 양일화(82)씨는 49년 12월 산사람,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됐다. 단순히 산에 올라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경찰은 그를 모질게 고문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전기로 지지고 구타를 해대며 마치 소갈은 취급을 했다고 회상했다.

그 뒤, 양씨는 인천형무소에서 1년 반 동안 수감생활을 했으며, 인민군으로 편입, 포로생활 등을 거치며 5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지냈다. 고된 생활이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삶은 피폐해졌다.

그 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그는 다시 한국군에 입대해 만기 제대한다.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지내던 양씨는 몸과 마음에 4·3이라는 고통을 기억한 채 평생을 살아왔다. 노년이 되자 찾아온 4·3의 후유증들은 더욱 심해졌다. 경찰에게 받은 고문 때문이었다. 온몸에 장애가 왔다. 그러나 퇴행성 디스크라는 진단과 불인정자라는 낙인을 받았을 뿐이다.

양창욱(69)씨는 어렸을 적 아버지와 형모두가 총살당하는 비극을 맞아야 한다. 그 뒤 양씨는 어머니를 따라 산 속 굴에서 살았다. 토벌대가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와 양씨를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양씨는 산에서 경찰에 잡혔다. 당시 6살이었던 그는 한림지에서 어머니와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과정에서 구타와 함께 패대기쳐지는 등의 폭력을 당한다. 당시 양씨는 다리가 부러졌고, 뼈에는 공간이 생겼다. 그렇지만 경제적 문제로 평생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지금도 종합병원에 가 사진을 찍어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제주한라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선전과정에서 노인회장, 이장, 팔촌 형님까지 증언했지만 결국 후유장애인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대다수의 4·3 연구자들은 4·3 후유장애인 문제에 아직도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4년 4·3 후유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 10

여년이 지났음에도 명쾌한 선정기준과 지원제도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유장애 불인정자 문제는 4·3 피해의 당사자에 대한 사항이기에 가장 먼저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4·3 후유장애인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상태이며, 시기가 늦춰질수록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어려워진다.

김철(4·3 후유장애자) 후유장애인 협회장은 “현재 협회에는 모두 120여명의 후유장애인이 등록 돼 있으나, 27명은 4·3중앙위원회에서 불인정 받은 상태”라며 “협회는 이들의 명예회복과 아픔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여 간 4·3 후유장애인의 삶을 연구해 온 김동만 한라대 교수는 4·3 후유장애 불인정자 문제는 그 선정기준이 보수적으로 이뤄진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후유장애의 범주는 외상 후 스트레스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재 4·3후유장애의 기준은 대부분 외상을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 폭과 시기 등이 매우 협소하다.

김동만 교수는 “4·3 후유장애인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보다 현실적인 선정기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4·3재단 모두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은 9일 오후 제30차 이사회를 열고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단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해 이달부터 추가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박종건 기자

### 4·3 기행

#### 현장에서 ‘그때 그 자리’ 의미 새겨

지난달 30일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학생들은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삼삼오오 학생회관으로 모여들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자치기구들이 준비한 4·3 기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오전 9시경, 학생회관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첫 번째 행선지는 ‘잃어버린 마을’ 곤울동(제주시 화북1동)이었다. 70여 호의 가구가 살던 평화롭던 마을은, 불시에 들이닥친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됐다. 지금은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참변을 당했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만큼 평화롭고 한적한 풍경이었다.

두 번째 행선지는 조천읍 북촌리 너분송이. 넓은 땅이라는 뜻으로 ‘너분송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애기무덤 20여개가 안장돼 있다. 1949년 군인들에 의해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한 북촌리민들은 집단적으로 총살을 당했다. 널브러진 시체를 중 어른들의 시신은 후에 안장됐는데,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 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크기도 자그마한 돌무덤. 허무하게 죽어갔을 아이들을 떠올리며 몇몇 학생들은 무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낙선동성이었다. 1948년 선흘리가 초토화 작전으로 불타고, 인근 동굴이나 들만에 움막을 짓고 살던 마을 주민들은 은신했던 굴까지 잇따라 발각되면서 무차별적인 죽임을 당했다. 겨우 살아남은 몇몇 주민들은 1949년 봄 낙선동에 성을 쌓고 강제적인 집단 거주를 했다. 성을 쌓는



북촌리 너분송이에서 학생들이 묵념하고 있다.

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다. 지금은 마치 문화유적처럼 남아 있는 낙선동성. 거기에는 당시 주민들이 흘려야 했을 땀과 눈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른 4·3 평화공원은 4·3사건 발발 이후 50여 년간 해원되지 못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령하고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조성됐다. 처음 들리는 학생들은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4·3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이미 와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다시금 4·3의 상처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했던 신지인(국어국문학과 1)씨는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무척 좋은 경험이었다”며 “다시 한 번 4·3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 뜻깊었다”고 말했다.

정준호 총학생회장은 “4·3에 대해 무지한 대학생들이 많아 매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 만족스럽고 감사한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고문당한 다리가 아파  
진통제 없인 잠도 못 자”

“나이가 들수록  
4·3 후유증 더 심해져”

외상중심 후유장애 판단 안돼  
현실적인 선정기준 마련 시급

## “기자 (記者)”

명사)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

당신은 기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설명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제주대신문사 기자는 다릅니다.

제주대신문사 기자는 제주대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기사가 활자로 인쇄되어 나오는 순간, 당신은 희열을 느낄 겁니다.  
그 희열을 당신도 느껴보고 싶다면, 오십시오.

제주대신문으로



## 제주대신문 60기 수습기자 모집

수습기자가 되면 ...

**A급 장학 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등 해외 원정 취재)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컴퓨터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 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을 이용한 신문 편집 교육

##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보람찬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은 1학년 새내기  
**전화번호 :**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위치 :** 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마감 :** 4월 30일까지

